

시각장애인용 재활보조기구를 소지하고 있는 경우에 가장 높은 소지율을 보이고 있는 재활보조기구는 콘택트렌즈를 포함한 안경으로 51.0%의 소지율을 보였으며, 그 외에는 의안 13.2%, 시각장애인용 흰지팡이 5.9%의 순이었다. 또한 청각장애인용 재활보조기구에 있어서는 보청기가 59.7%로서 압도적으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언어장애인용 재활보조기구 중에서는 인공후두(성대)가 2.9%로서 가장 높은 소지율을 보였다.

신장장애인용 재활보조기구의 경우에는 복막투석기구가 13.1%로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호흡기장애인용 재활보조기구 중에서는 가장 널리 쓰이는 산소호흡기가 22.7%, 그리고 기타의 재활보조기구가 40.7%의 소지율을 보였다. 또한 재활보조기구 소지율이 가장 높은 장루·요루장애인용 재활보조기구의 경우에는 장루주머니가 93.9%, 피부보호관 75.4%의 순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특정 장애유형과 관계없는 재활보조기구라고 할 수 있는 기타 품목 중에서는 기저귀매트 1.9%, 욕창방지용 매트 1.7%, 목욕용 의자 0.7%의 소지율을 보였다.

〈표 6-3-2〉 소지 재활보조기구 종류

(단위: %, 명)

구분	소지 재활보조기구	비율	구분	소지 재활보조기구	비율	
지체장애인용 및 뇌병변장애인용	상지의지	2.2	청각장애용	보청기	59.7	
	하지의지	2.0		화상전화기	0.3	
	척추보조기	6.6		골도전화기	0.7	
	상지보조기	0.8		문자전화기	0.5	
	하지보조기	3.1		문자송수신기	0.5	
	정형외과용 구두	1.2		음성증폭기	0.5	
	지팡이	21.0		인공와우	0.3	
	목발	9.7		TV 자막수신기	2.8	
	보행기	2.2		기타	0.5	
	자세보조기구	1.0			(224,091)	
	전동휠체어	0.9		언어장애	인공후두(성대)	2.9
	수동휠체어	4.0			기타	0.0
	전동스쿠터	0.8			(14,938)	
	기타	3.3		신장장애	복막투석기구	13.1
		(969,484)			기타	1.2
시각장애용	안경(콘택트렌즈)	51.0		(33,435)		
	저시력보조기	4.3	호흡기장애	산소호흡기	22.7	
	시각장애인용 흰지팡이	5.9		기타	40.7	
	의안	13.2		(28,100)		
	스크린 리더	0.4	장루·요루장애	장루주머니	93.9	
	화면 확대기	1.6		피부보호관	75.4	
	휴대용점자정보단말기	0.2		기타	18.6	
	음성손목/탁상시계	3.5		(14,634)		

<표 6-3-2> 계속

구분	소지 재활보조기구	비율	구분	소지 재활보조기구	비율
안면장애	시각장애인용 안내견	0.0	기타	욕창방지용매트	1.7
	기타	4.7		기저귀매트	1.9
		(214,096)		목욕용 의자	0.7
	압력옷	0.0		기타	1.6
	기타	0.0			(1,304,117)
		(2,874)			

주: 중복응답비율이며, ()안은 전국 추정수임.

현재 재활보조기구를 소지하고 있다고 응답한 장애인을 대상으로 재활보조기구를 어느 정도 잘 사용하고 있는지를 알아본 결과, 비교적 ‘매우 자주 사용한다’가 55.2%, ‘자주 사용하는 편이다’는 16.8%로 전체적으로 72%의 장애인이 재활보조기구를 자주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재활보조기구를 갖고 있으면서 전혀 사용하지 않거나 자주 사용하지 않는 경우도 전체의 28%를 차지하고 있다. 장애유형별로는 가장 높은 재활보조기구 소지율을 보였던 장루·요루장애를 비롯하여 호흡기장애, 신장장애, 심장장애 등 내부 장애인의 재활보조기구 사용 비율이 다른 장애유형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표 6-3-3> 재활보조기구 현재 사용정도

(단위: %, 명)

구분	지체 장애	뇌병변 장애	시각 장애	청각 장애	언어 장애	정신 지체	발달 장애 (차폐)	정신 장애	신장 장애	심장 장애	호흡기 장애	간 장애	안면 장애	장루·요루 장애	간질 장애	전체
매우 자주 사용	46.6	52.3	72.6	63.0	40.8	38.3	74.6	32.3	70.9	66.4	60.3	14.9	0.0	84.9	21.6	55.2
자주 사용하는 편	19.8	20.3	12.9	8.1	11.0	31.2	0.0	0.0	14.6	14.2	25.2	0.0	100.0	5.8	0.0	16.8
자주 사용안함	15.2	11.0	8.4	10.2	11.1	19.5	0.0	35.2	0.0	9.4	8.36	28.5	0.0	6.4	50.2	12.5
거의 사용않음	17.8	16.4	6.1	6.11	37.1	11.0	25.4	32.5	14.5	10.0	6.2	56.5	0.0	3.0	28.2	15.5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N)	(1,122)	(437)	(390)	(378)	(9)	(10)	(4)	(3)	(28)	(21)	(46)	(7)	(2)	(39)	(4)	(2,500)
전국추정수	430,654	168,045	151,199	146,132	3,591	3,879	1,660	1,126	10,390	8,098	17,993	2,747	786	15,083	1,651	963,034

주: 비해당 2,965건 및 무응답 1건 제외

재활보조기구를 잘 사용하지 않는 장애인에 대해서 그 이유를 질문한 결과, ‘사용이 번거로워서’가 34.0%로 가장 높고, 다음으로는 ‘사용할 필요가 없어서’ 25.7%, ‘별 효과가 없어서’ 22.7%의 순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는 대체로 재활보조기구를 필수적으로 사용하지 않아도 어느 정도 생활이 가능한 장애인들이 상당수 있음을 보여주는 결과라 할 수 있다.

〈표 6-3-4〉 재활보조기구 사용 않는 주된 이유

(단위: %, 명)

구분	지체 장애	뇌병변 장애	시각 장애	청각 장애	언어 장애	정신 지체 (자폐)	발달 장애	정신 장애	신장 장애	심장 장애	호흡기 장애	간 장애	안면 장애	장루·요루 장애	간질 장애	전체
사용이 번거로워	35.8	31.8	36.1	31.4	0.0	63.9	100.0	100.0	0.0	25.2	27.5	32.6	-	68.0	0.0	34.0
미관상 용해서	13.2	12.0	12.3	5.5	0.0	0.0	0.0	0.0	0.0	23.2	14.8	0.0	-	0.0	68.5	11.6
별 효과가 없어	12.3	15.6	44.5	50.2	77.1	36.1	0.0	0.0	53.7	0.0	14.8	67.4	-	32.0	31.5	22.7
사용할 필요가 없어	34.4	32.8	5.1	2.7	0.0	0.0	0.0	0.0	46.3	51.5	29.6	0.0	-	0.0	0.0	25.7
기타	4.8	7.9	1.9	10.3	22.9	0.0	0.0	0.0	0.0	0.0	13.3	0.0	-	0.0	0.0	5.9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	100.0	100.0	100.0
(N)	(374)	(118)	(56)	(109)	(4)	(3)	(1)	(2)	(4)	(4)	(7)	(6)	-	(3)	(3)	(694)
전국추정수	144,690	45,109	22,014	42,194	1,730	1,183	421	762	1,507	1,570	2,608	2,337	-	1,408	1,295	268,828

주: 비례당 4,769건 및 무응답 3건 제외

2. 필요한 재활보조기구

현재 재활보조기구를 갖고 있지 않지만 앞으로 필요한 재활보조기구가 있다면 그 종류는 무엇인지 살펴본 결과는 <표 6-3-5>와 같다. 지체장애 및 뇌병변장애인용 재활보조기구의 경우에는 지팡이에 대한 수요가 전체의 20.6%로 가장 높았으며, 이어서 목발(7.3%), 척추보조기(6.4%), 수동휠체어(4.7%)의 순으로 나타났다. 2000년도 조사에서 30.7%로서 가장 높은 수요를 보였던 전동휠체어는 2005년도 조사에서는 3.2%로 수요가 급감한 것이 특히 할만한 결과이다.

시각장애인용 재활보조기구의 경우에는 안경(콘택트렌즈)이 53.4%로 가장 높았으며, 실명자에게 필요한 의안에 대한 수요도 14.4%로 비교적 높게 나타났다. 청각장애인용에 있어서는 대표적인 재활보조기구라 할 수 있는 보청기에 대한 수요가 압도적으로 높아 71.8%를 보이고 있으며, 언어장애인용 재활보조기구인 인공후두에 대한 수요는 5.5%였다.

신장장애인용 재활보조기구의 경우에는 복막투석기구가 13.2%로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호흡기장애인용 재활보조기구 중에서는 가장 널리 쓰이는 산소호흡기가 46.7%, 그리고 기타의 재활보조기구가 43.3%의 수요를 나타냈다. 또한 장루·요루장애인용 재활보조기구의 경우에는 장루주머니가 93.9%, 피부보호관 81.3%의 순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특정 장애 유형과 관계없는 재활보조기구라고 할 수 있는 기타 품목 중에서는 기저귀매트 2.8%, 목욕용 의자 2.8%, 욕창방지용 매트 2.7%의 수요를 보였다.

<표 6-3-5> 필요 재활보조기구 종류

(단위: %, 명)

구분	필요 재활보조기구	비율	구분	필요 재활보조기구	비율	
지체장애인용 및 뇌병변장애인용	상지의지	2.3	청각장애용	보청기	71.8	
	하지의지	2.0		화상전화기	5.0	
	척추보조기	6.4		골도전화기	2.5	
	상지보조기	0.9		문자전화기	6.4	
	하지보조기	2.9		문자송수신기	1.9	
	정형외과용 구두	3.2		음성증폭기	2.4	
	지팡이	20.6		인공와우	3.4	
	목발	7.3		TV 자막수신기	10.0	
	보행기	2.7		기타	0.9	
	자세보조기구	1.7			(224,481)	
	전동휠체어	3.2		언어장애	인공후두(성대)	5.5
	수동휠체어	4.7			기타	0.0
	전동스쿠터	2.7			(14,938)	
	기타	3.9		신장장애	복막투석기구	13.2
	(969,073)	기타	1.2			
시각장애용	안경(콘택트렌즈)	53.4		(33,435)		
	저시력보조기	7.0	호흡기장애	산소호흡기	46.7	
	시각장애인용 흰지팡이	7.1		기타	43.3	
	의안	14.4		(28,100)		
	스크린 리더	2.1	장루·요루장애	장루주머니	93.9	
	화면 확대기	4.8		피부보호관	81.3	
	휴대용점자정보단말기	1.7		기타	18.6	
	음성손목/탁상시계	9.2			(14,634)	
	시각장애인용 안내견	0.9	기타	욕창방지용매트	2.7	
	기타	6.6		거저귀매트	2.8	
		(215,679)		목욕용 의자	2.8	
		기타		1.9		
안전장애	압력옷	0.0		(1,303,371)		
	기타	0.0				
		(2,874)				

주: 중복응답비율이며, ()안은 전국 추정수임.

필요한 재활보조기구가 있다고 응답한 장애인 중 재활보조기구를 구입하지 않은 이유를 복수응답으로 파악한 결과 다음의 <표 6-3-6>에서 보는 바와 같이, '구입비용 때문에'가 전체의 68.3%로서 가장 많은 응답률을 나타내 가장 주된 이유임을 알 수 있으며, 그 밖의 이유로는 '적절한 재활보조기구가 없어서' 6.7%, '사용이 불편하여' 5.8%, '미관상 흠해서' 5.6%, '구입처를 몰라서' 5.6% 등의 순으로 대체로 유사한 수준을 보였다. 결국 장애인이 재활보조기구를 필요로 하더라도 사용하지 못하는 것은 고가의 재활보조기구 구입에 따르

2008. 11. 15
10:21:10

는 경제적 어려움이 가장 큰 요인이라는 점을 보여주고 있다.

〈표 6-3-6〉 필요 재활보조기구를 구입하지 않은 이유

(단위: %, 명)

구분	지체 장애	뇌병변 장애	시각 장애	청각 장애	언어 장애	정신 지체 (자폐)	발달 장애	정신 장애	신장 장애	심장 장애	호흡기 장애	간 장애	안면 장애	장루·요루 장애	간질 장애	전체
구입비용 때문에	70.6	67.2	63.8	64.1	75.2	83.1	100.0	50.6	63.6	77.3	86.9	100.0	-	51.7	-	68.3
구입처를 몰라서	3.7	6.3	7.0	8.1	24.8	0.0	0.0	0.0	9.3	0.0	4.3	0.0	-	0.0	-	5.6
사용이 불편	6.1	4.6	9.9	4.0	0.0	0.0	0.0	26.2	17.0	0.0	4.4	0.0	-	0.0	-	5.8
미관상 흠해서	8.5	6.8	0.8	2.6	0.0	0.0	0.0	0.0	0.0	0.0	0.0	0.0	-	0.0	-	5.6
별 효과가 없어서	3.3	3.4	4.1	6.5	0.0	0.0	0.0	0.0	0.0	0.0	4.4	0.0	-	0.0	-	4.0
구입할 시간이 없어서	1.1	1.0	2.9	2.2	0.0	0.0	0.0	0.0	0.0	22.7	0.0	0.0	-	0.0	-	1.5
적합한 재활보조 기구가 없어서	5.1	6.5	9.5	10.8	0.0	0.0	0.0	0.0	0.0	0.0	0.0	0.0	-	0.0	-	6.7
기타	1.6	4.2	2.0	1.7	0.0	16.9	0.0	23.2	10.1	0.0	0.0	0.0	-	48.3	-	2.6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	100.0	-	100.0
(N)	(383)	(201)	(101)	(182)	(4)	(6)	(2)	(4)	(11)	(4)	(24)	(1)	-	(2)	-	(925)
전국추정수	146,250	77,430	40,027	70,499	1,594	2,496	772	1,477	4,099	1,532	9,124	365	-	958	-	356,535

주: 비례당 4,530건 및 무응답 11건 제외

3. 정보통신기기 사용 현황

장애인은 대표적인 정보화 소외 계층의 한 부류이다. 휴대폰, 컴퓨터(PC) 및 인터넷 등 가장 보편적인 정보통신기기를 재가장애인이 어느 정도 보유하고 사용하고 있는지를 살펴본 결과는 <표 6-3-7>과 같다. 보유율에 있어서는 휴대폰 55.2%, 컴퓨터(PC) 50.0%, 인터넷 48.3%로서 비슷한 분포를 보였으며, 사용률에 있어서는 휴대폰이 81.2%로서 컴퓨터(36.4%) 및 인터넷(36.4%)에 비해 압도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장애유형별로는 휴대폰의 경우 보유율은 안면장애와 신장장애가 70% 수준으로 가장 높았고, 사용률은 안면장애가 100.0%, 간장애, 장루·요루장애, 신장장애가 90%대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나 안면장애의 휴대폰 보유 및 사용률이 가장 높았다. 컴퓨터(PC)의 경우 보유율은 발달장애(78.0%), 안면장애(66.2%)가 높았고, 사용률은 안면장애(76.4%), 발달장애(50.5%)가 높은 것으로 나타나, 발달장애와 안면장애의 컴퓨터 보유 및 사용률이 가장 높았다. 인터넷의 경우 보유율은 발달장애(78.0%), 안면장애(66.2%)가 높았고, 사용률은 안면장애(76.4%), 발달장애(50.7%)가 높은 것으로 나타나 컴퓨터와 동일하게 발달장애와 안면장애의 인터넷 보유 및 사용률도 가장 높았다.

〈표 6-3-7〉 정보통신기기 보유 및 사용 여부

(단위: %, 명)

구분		지체	뇌병변	시각	청각	언어	정신	발달	정신	신장	심장	호흡기	간	안면	장루·	간질	전체
		장애	장애	장애	장애	장애	지체	(자폐)	장애	장애	장애	장애	장애	장애	장애	요루	
휴대폰	보유율	69.7	30.5	63.2	39.5	39.5	20.9	5.3	32.0	73.2	59.0	58.2	57.3	75.2	53.9	45.9	55.2
	사용률	88.4	56.0	84.2	74.5	83.4	42.7	21.7	63.6	90.6	81.7	81.0	95.5	100.0	95.4	72.1	81.2
컴퓨터(PC)	보유율	53.9	41.9	50.9	41.3	52.8	50.1	78.0	40.1	58.4	46.1	37.8	49.0	66.2	52.3	56.6	50.0
	사용률	42.3	16.2	35.4	28.4	24.2	46.8	50.5	31.9	44.1	25.5	19.4	24.9	76.4	17.7	49.1	36.4
인터넷	보유율	52.2	41.0	48.6	41.0	50.9	46.7	78.0	37.1	56.4	44.1	36.5	49.0	66.2	47.3	56.6	48.3
	사용률	42.1	16.2	35.1	28.1	25.0	40.6	50.7	31.7	44.8	26.4	17.4	31.6	76.4	19.2	49.1	36.0

정보통신기기를 보유 또는 사용하지 않는 장애인에 대해서 그 이유를 질문해 보았다. 조사 결과 휴대폰의 경우에는 ‘필요성이 없어서’ 62.1%, ‘사용비가 많이 들어서’ 19.9%의 순으로 나타났으며, 컴퓨터(PC)와 인터넷의 경우에는 ‘필요성이 없어서’가 각각 54.6%, 54.4%, ‘복잡하고 어려워’가 각각 24.7%로 나타났다. 이는 최근 정보통신부 및 민간 기관 등에서 정보화 기기 보급 사업 등 장애인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다양한 사업을 실시하고 있음에도, 정보통신기기의 사용에 대한 장애인의 심리적, 기술적 불편이 여전히 적지 않음을 보여주는 결과라 할 수 있다.

장애유형별로는 정보통신기기를 보유 또는 사용하지 않는 이유로 가장 많이 응답한 ‘필요성이 없어서’의 경우, 휴대폰은 안면장애(100.0%)가, 컴퓨터는 청각장애(64.8%), 뇌병변장애(63.4%)가, 인터넷은 청각장애(65.2%), 뇌병변장애(63.0%)가 가장 많았다.

〈표 6-3-8〉 정보통신기기 보유·사용하지 않는 이유

(단위: %, 명)

구분	지체장애			뇌병변장애			시각장애			청각장애			언어장애		
	휴대폰 ¹⁾	PC ²⁾	인터넷 ³⁾	휴대폰	PC	인터넷	휴대폰	PC	인터넷	휴대폰	PC	인터넷	휴대폰	PC	인터넷
구입설치비가 많이 들어서	10.3	9.4	6.0	7.3	4.3	2.9	7.3	7.4	5.5	5.2	4.2	3.0	0.0	7.8	5.1
사용비가 많이 들어서	29.5	3.2	6.8	13.3	1.6	3.1	22.7	1.1	2.7	8.8	0.7	1.9	14.8	0.0	2.8
복잡하고 어려워	5.2	27.1	27.0	7.4	19.5	19.3	7.9	24.2	23.6	5.9	19.4	19.3	0.0	25.7	25.7
필요성이 없어서	54.0	50.8	50.6	68.1	63.4	63.0	59.8	57.3	58.1	77.0	64.8	65.2	85.2	52.2	52.2
배우기 싫어서	0.0	3.4	3.4	0.0	2.9	3.4	0.0	2.7	2.6	0.0	2.7	2.5	0.0	2.3	2.3
어디에 쓰는 것인지 몰라서	0.7	4.2	4.3	3.1	7.8	7.8	1.8	5.5	5.4	1.3	7.9	7.9	0.0	9.5	9.5
기타	0.4	1.7	1.8	0.8	0.5	0.5	0.5	1.8	2.0	1.8	0.2	0.2	0.0	2.4	2.4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N)	(811)	(1,889)	(1,907)	(510)	(629)	(630)	(219)	(444)	(448)	(370)	(503)	(505)	(30)	(43)	(43)
전국추경수	308,495	720,043	726,642	195,690	241,723	242,103	83,873	170,718	172,224	140,976	192,996	193,729	11,732	16,754	16,754

<표 6-3-8> 계속

구분	정신 지체			발달 (자폐)			정신 장애			신장 장애			심장 장애		
	휴대폰 ¹⁾	PC ²⁾	인터넷 ³⁾	휴대폰	PC	인터넷	휴대폰	PC	인터넷	휴대폰	PC	인터넷	휴대폰	PC	인터넷
정보통신기기															
구입설치가 많이 들어서	2.6	4.5	3.6	5.3	9.4	5.8	12.6	9.6	7.6	9.9	9.1	9.1	13.3	6.5	6.5
사용비가 많이 들어서	15.3	1.5	2.9	17.3	8.9	15.0	19.6	1.8	4.2	22.2	4.3	4.3	22.2	2.3	2.3
복잡하고 어려워	12.7	28.8	31.5	18.1	45.1	42.5	4.0	21.5	22.5	10.9	29.1	29.1	4.4	20.0	19.0
필요성이 없어서	64.3	46.1	43.1	54.2	13.2	13.3	57.6	56.3	55.0	57.0	42.8	42.8	55.3	59.5	60.5
배우기 싫어서	0.0	1.5	1.4	0.0	6.1	6.1	1.4	4.1	4.0	0.0	7.9	7.9	0.0	6.8	6.8
어디에 쓰는 것인지 몰라서	4.8	17.2	16.1	5.1	14.3	14.4	4.7	6.3	6.2	0.0	5.6	5.6	0.0	3.5	3.5
기타	0.4	0.5	1.3	0.0	3.0	3.0	0.0	0.4	0.4	0.0	1.3	1.3	4.9	1.3	1.3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9	100.0	100.0	100.0
(N)	(239)	(206)	(219)	(56)	(34)	(34)	(139)	(168)	(170)	(28)	(75)	(75)	(45)	(91)	(91)
전국추정수	91,295	78,078	83,498	22,029	13,461	13,422	53,343	64,392	65,225	10,784	28,559	28,559	17,096	35,023	35,023

주: 1) 비해당 2,924명 및 무응답 1명 제외
 2) 비해당 1,215명 및 무응답 2명 제외
 3) 비해당 1,175명 및 무응답 2명 제외

<표 6-3-8> 계속

(단위: %, 명)

구분	호흡기 장애			간 장애			안면 장애			장루·요루 장애			간질 장애			전체		
	휴대폰 ¹⁾	PC ²⁾	인터넷 ³⁾	휴대폰	PC	인터넷	휴대폰	PC	인터넷	휴대폰	PC	인터넷	휴대폰	PC	인터넷	휴대폰	PC	인터넷
정보통신기기																		
구입설치가 많이 들어서	18.5	9.3	7.7	7.0	7.2	7.5	0.0	18.2	0.0	20.1	5.1	5.1	24.8	16.1	8.1	8.2	7.5	5.2
사용비가 많이 들어서	24.5	4.2	5.6	40.6	3.5	3.7	0.0	0.0	18.2	20.7	0.0	0.0	20.5	3.7	11.7	19.9	2.3	4.8
복잡하고 어려워	5.8	27.8	28.9	6.3	36.0	37.7	0.0	31.6	31.6	18.8	23.4	23.4	0.0	27.2	27.2	7.0	24.7	24.7
필요성이 없어서	51.2	54.6	53.8	33.2	30.1	26.9	100.0	50.1	50.1	40.4	53.8	53.8	54.7	37.5	41.3	62.1	54.6	54.4
배우기 싫어서	0.0	2.6	2.5	0.0	9.9	10.3	0.0	0.0	0.0	0.0	5.6	5.6	0.0	3.8	3.8	0.1	3.3	3.3
어디에 쓰는 것인지 몰라서	0.0	0.0	0.0	7.1	6.9	7.2	0.0	0.0	0.0	0.0	9.0	9.0	0.0	7.6	3.9	2.0	6.2	6.2
기타	0.0	1.6	1.5	5.7	6.5	6.8	0.0	0.0	0.0	0.0	3.1	3.1	0.0	4.1	4.1	0.7	1.3	1.4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N)	(33)	(69)	(70)	(15)	(30)	(29)	(3)	(6)	(6)	(19)	(36)	(36)	(24)	(26)	(26)	(2,541)	(4,249)	(4,289)
전국추정수	12,978	26,787	27,181	5,716	11,515	11,008	1,085	2,158	2,158	7,127	13,759	13,759	8,925	9,751	9,751	971,144	1,625,717	1,644,036

주: 1) 비해당 2,924명 및 무응답 1명 제외
 2) 비해당 1,215명 및 무응답 2명 제외
 3) 비해당 1,175명 및 무응답 2명 제외

정보통신기기를 보유 또는 사용하지 않는 장애인을 대상으로 향후에 정보통신기기를 보유 또는 사용할 계획이 있는지를 질문한 결과, 정보통신기기 종류에 상관없이 '구입·사용 계획 없음'의 응답률이 월등히 높았던 반면, '꼭 구입·사용하겠다'의 응답률은 매우 미미하게 나타났다. 정보통신기기 종류별 응답률을 살펴보면, '구입·사용계획 없음'의 경우에는 휴대폰 76.3%, 컴퓨터 81.8%, 인터넷 81.1%로 나타났으며, '여건이 되면 구입·사용'의 경우에는 휴대폰 21.6%, 컴퓨터 16.6%, 인터넷 17.1%로 나타났다.

장애유형별로도 향후 정보통신기기의 '구입·사용 계획 없음'이라고 응답한 경우가 가장 많았는데, 휴대폰의 경우 청각장애(88.6%), 뇌병변장애(80.1%)가, 컴퓨터(PC)는 청각장애(90.5%), 호흡기장애(89.9%), 뇌병변장애(88.7%)가, 그리고 인터넷은 청각장애 및 호흡기장애(90.0%), 뇌병변장애(88.4%)가 가장 많았다.

〈표 6-3-9〉 정보통신기기 향후 보유·사용 계획

(단위: %, 명)

구분	지체장애			뇌병변장애			시각장애			청각장애			언어장애		
	휴대폰 ¹⁾	PC ²⁾	인터넷 ³⁾	휴대폰	PC	인터넷	휴대폰	PC	인터넷	휴대폰	PC	인터넷	휴대폰	PC	인터넷
꼭 구입·사용하겠다	2.7	2.0	2.1	2.8	0.8	0.8	1.0	0.6	0.9	1.3	1.6	1.8	2.8	0.0	0.0
여건이 되면 구입·사용	26.7	21.2	21.6	17.2	10.5	10.8	21.5	14.4	14.7	10.1	7.9	8.2	18.3	21.4	21.4
구입·사용 계획 없음	70.6	76.8	41.6	80.1	88.7	88.4	77.6	85.0	84.4	88.6	90.5	90.0	78.9	78.6	78.6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N)	(810)	(1,889)	(1,907)	(510)	(629)	(630)	(219)	(444)	(448)	(369)	(503)	(505)	(30)	(43)	(43)
전국추정수	308,100	720,043	726,642	195,690	241,723	242,103	83,873	170,718	172,224	146,040	192,996	193,729	11,732	16,754	16,754

주: 1) 비해당 2,924명 및 무응답 3명 제외 2) 비해당 1,215명 및 무응답 2명 제외 3) 비해당 1,175명 및 무응답 2명 제외

〈표 6-3-9〉 계속

(단위: %, 명)

구분	정신지체			발달(자폐)			정신장애			신경장애			심장장애		
	휴대폰 ¹⁾	PC ²⁾	인터넷 ³⁾	휴대폰	PC	인터넷	휴대폰	PC	인터넷	휴대폰	PC	인터넷	휴대폰	PC	인터넷
꼭 구입·사용하겠다	0.7	1.0	2.0	5.6	6.0	8.4	0.7	0.7	1.3	0.0	0.0	0.0	1.9	2.1	2.1
여건이 되면 구입·사용	20.7	14.0	17.7	35.8	51.0	48.4	23.7	17.7	18.7	28.6	20.5	20.5	22.2	12.7	12.7
구입·사용 계획 없음	78.5	84.9	80.3	58.6	43.1	43.2	75.6	81.6	80.0	71.4	79.5	79.5	75.9	85.2	85.2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N)	(239)	(206)	(219)	(56)	(34)	(34)	(139)	(168)	(170)	(28)	(75)	(75)	(45)	(91)	(91)
전국추정수	91,295	78,078	83,498	22,029	13,461	13,422	53,343	64,392	65,225	10,784	28,559	28,559	12,978	35,023	35,023

주: 1) 비해당 2,924명 및 무응답 3명 제외 2) 비해당 1,215명 및 무응답 2명 제외 3) 비해당 1,175명 및 무응답 2명 제외

〈표 6-3-9〉 계속

(단위: %, 명)

구분	호흡기 장애			간 장애			안면 장애			장루·요루 장애			간질 장애			전체		
	휴대폰 ¹⁾	PC ²⁾	인터넷 ³⁾	휴대폰	PC	인터넷	휴대폰	PC	인터넷	휴대폰	PC	인터넷	휴대폰	PC	인터넷	휴대폰	PC	인터넷
꼭 구입·사용하겠다	0.0	1.6	1.5	0.0	6.7	7.0	0.0	13.9	13.9	0.0	3.3	3.3	7.1	0.0	0.0	2.1	1.6	1.8
여건이 되면 구입·사용 계획 없음	39.8	8.6	8.4	41.2	17.0	17.8	35.2	36.7	36.7	21.9	11.0	11.0	40.0	28.3	28.3	21.6	16.6	17.1
구입·사용 계획 없음	60.2	89.9	90.0	58.8	76.3	75.2	64.8	49.4	49.4	78.1	85.7	85.7	52.9	71.7	71.7	76.3	81.8	81.1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N)	(33)	(69)	(70)	(15)	(30)	(29)	(3)	(6)	(6)	(19)	(36)	(36)	(24)	(26)	(26)	(2,539)	(4,249)	(4,289)
전국추정수	12,978	26,787	27,181	5,716	11,515	11,008	1,085	2,158	2,158	7,127	13,759	13,759	8,925	9,751	9,751	970,413	1,625,717	1,641,036

주: 1) 비해당 2,924명 및 무응답 3명 제외 2) 비해당 1,215명 및 무응답 2명 제외 3) 비해당 1,175명 및 무응답 2명 제외

제 4 절 보육·교육

9세 이하의 장애 아동이 현재 다니고 있는 보육시설 형태를 알아본 결과, 전체의 68.9%가 다니지 않음으로 응답하여 9세 이하의 장애아동은 대부분 가정에서 부모나 가족이 돌보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보육시설을 이용하고 있다고 응답한 장애인 중에 이용하고 있는 보육시설 형태로는 장애전담보육시설이 15.3%로 가장 많았고, 일반보육시설 13.3%, 일반보육시설 내 특수반 2.5%의 순이었다.

장애유형별로는 뇌병변장애의 경우 장애아전담보육시설 이용률이 25.9%로 가장 높았고, 청각장애는 일반보육시설 이용률이 51.2%로 가장 높았다.

〈표 6-4-1〉 현재 다니고 있는 보육시설 형태

(단위: %, 명)

구분	지체 장애	뇌병변 장애	시각 장애	청각 장애	언어 장애	정신 지체	발달 장애 (자폐)	정신 장애	신장 장애	심장 장애	호흡기 장애	간 장애	안면 장애	장루·요루 장애	간질 장애	전체
일반보육시설	15.8	10.7	-	51.2	-	11.1	14.0	-	-	17.4	-	-	-	-	-	13.3
일반보육시설내특수반	-	-	-	-	-	5.8	4.4	-	-	-	-	-	-	-	-	2.5
장애전담보육시설	-	25.9	-	-	18.3	23.0	11.3	-	-	-	-	-	-	-	-	15.3
다니지 않음	84.2	63.4	100.0	48.8	81.7	60.1	70.3	-	-	82.6	-	100.0	-	-	-	68.9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	-	100.0	-	100.0	-	-	-	100.0
(N)	(6)	(19)	(2)	(4)	(5)	(18)	(22)	-	-	(5)	-	(1)	-	-	-	(82)
전국추정수	2,286	7,352	747	1,507	2,047	7,112	8,850	-	-	1,930	-	328	-	-	-	32,159

주: 1) 비해당(10세 이상) 5,384건 제외

2) 응답자 수가 적어 조사결과의 신뢰도가 낮을 수 있음.

〈표 6-7-34〉 기타서비스의 필요성

(단위: %, 명)

구분	지체 장애	뇌병변 장애	시각 장애	청각 장애	언어 장애	정신 지체	발달 (자폐) 장애	정신 장애	신장 장애	심장 장애	호흡기 장애	간 장애	안면 장애	장루·요루 장애	간질 장애	전체
매우 필요	52.4	18.2	46.4	33.5	-	-	100.0	-	-	-	-	-	-	-	-	45.4
대체로 필요	36.6	41.3	19.5	66.5	-	-	100.0	-	-	-	-	-	-	100.0	-	38.8
별로 필요 안함	-	-	-	-	-	-	-	-	-	-	-	-	-	-	-	-
전혀 필요 안함	11.0	40.5	34.0	-	-	-	-	-	-	-	-	-	-	-	-	15.8
계	100.0	100.0	100.0	100.0	-	-	100.0	100.0	-	-	-	-	-	100.0	-	100.0
(N)	(19)	(5)	(5)	(3)	-	-	(1)	(2)	-	-	-	-	-	(1)	-	(36)
전국추정수	7,291	1,908	1,818	1,178	-	-	421	881	-	-	-	-	-	356	-	13,853

주: 비해당 5,416건 및 무응답 14건 제외

제 8 절 여가 및 사회활동

1. 외출

장애인들의 여가 및 사회활동을 알아보기 위해 혼자서 외출 가능여부를 알아보았다. 혼자서 집밖으로의 외출이 가능하다고 응답한 경우는 84.0%였고, 혼자서 외출이 불가능하다고 응답한 경우는 16.0%로 많은 장애인들이 독립적으로 외출이 가능한 것으로 나타났다. 장애유형 별로 보면, 안면장애, 장루·요루장애, 간질장애, 지체장애 등은 독립적인 외출이 가능한 비율이 비교적 높게 나타나고 있으나 발달장애, 뇌병변장애, 정신지체, 정신장애 등은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나고 있어 보호의 필요도와 관련하여 장애유형에 따른 차이를 보여주고 있다.

〈표 6-8-1〉 혼자 외출 여부

(단위: %, 명)

구분	지체 장애	뇌병변 장애	시각 장애	청각 장애	언어 장애	정신 지체	발달 (자폐) 장애	정신 장애	신장 장애	심장 장애	호흡기 장애	간 장애	안면 장애	장루·요루 장애	간질 장애	전체
예	92.7	50.4	90.0	92.5	92.0	64.2	48.3	78.2	86.4	88.0	74.9	74.4	100.0	96.8	93.3	84.0
아니오	7.3	49.6	10.0	7.5	8.0	35.8	51.7	21.8	13.6	12.0	25.1	25.6	-	3.2	6.7	16.0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N)	(2,594)	(691)	(569)	(594)	(51)	(290)	(59)	(201)	(106)	(108)	(77)	(35)	(12)	(40)	(38)	(5,465)
전국 추정수	996,346	266,070	219,511	227,849	19,827	110,937	23,259	77,180	40,286	41,684	29,953	13,397	4,369	15,466	14,555	2,100,729

주: 무응답 1건 제외

장애인들의 지난 1년간 평균 몇 번 정도 외출하는지 그 빈도를 알아본 결과, 외출을 거의 매일 하는 경우가 65.2%로 가장 많고, 1주일에 1~3회가 20.6%를 차지하고 있으며, 월 1~3회가 7.6%, 년 10회 이내 3.9%, 전혀 외출하지 않음 2.8%의 순이었다. 장애유형별로 보면, 안면장애, 발달장애, 정신지체 등은 비교적 외출 빈도가 높게 나타난 반면, 뇌병변장애는 전혀 외출을 하지 않는 경우가 다른 장애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아 외출에 있어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함을 알 수 있다.

<표 6-8-2> 외출 빈도

(단위: %, 명)

구분	지체 장애	뇌병변 장애	시각 장애	청각 장애	언어 장애	정신 지체 (자폐)	발달 장애	정신 장애	신장 장애	심장 장애	호흡기 장애	간 장애	안면 장애	장루·요루 장애	간질 장애	전체
거의 매일	71.4	40.0	70.0	69.4	72.4	75.2	90.3	49.2	51.3	53.4	43.2	43.6	91.5	69.6	40.4	65.2
주 1~3회	19.9	22.8	18.6	20.2	15.8	13.3	3.5	19.5	43.1	36.7	26.1	28.0	8.5	15.3	39.8	20.6
월 1~3회	5.2	14.0	7.2	6.3	5.8	5.8	1.7	18.1	5.5	8.9	18.1	16.8	-	15.1	10.5	7.6
년 10회 이내	2.3	11.1	3.8	2.7	2.1	4.4	4.6	5.6	-	1.0	8.2	5.7	-	-	7.4	3.9
전혀 외출 않음	1.2	12.1	0.3	1.4	4.0	1.4	-	7.6	-	-	4.3	6.0	-	-	2.0	2.8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N)	(2,594)	(691)	(569)	(593)	(51)	(290)	(59)	(201)	(106)	(108)	(77)	(35)	(12)	(40)	(38)	(5,464)
전국추정수	996,346	266,070	219,551	227,513	19,827	110,937	23,259	77,180	40,286	41,684	29,953	13,397	4,369	15,466	14,555	2,100,393

주: 무응답 2건 제외

재가장애인들의 외출의 주된 목적을 알아보면, <표 6-8-3>에 나타난 바와 같이 전반적으로 통근·통학을 위한 외출이 35.4%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다. 그 다음으로는 산책 22.9%, 병원진료 13.6%, 친구나 이웃 방문 13.2% 등의 순으로 나타나 재가장애인들의 외출 활동 분야가 상당히 제한되어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표 6-8-3〉 외출의 주된 목적

(단위: %, 명)

구분	지체 장애	뇌병변 장애	시각 장애	청각 장애	언어 장애	정신 지체	발달 (자폐)	정신 장애	신장 장애	심장 장애	호흡기 장애	간 장애	안면 장애	장루·요루 장애	간질 장애	전체
통근·통학	42.8	10.5	37.7	33.1	43.9	47.3	82.5	15.3	17.0	13.4	20.4	18.5	49.0	28.6	23.3	35.4
병원 진료	11.7	29.6	9.8	6.7	10.3	4.2	1.4	16.6	44.8	15.7	23.1	26.5	-	17.6	12.9	13.6
쇼핑(물건사기)	4.6	3.3	5.4	6.3	10.3	3.9	1.6	7.0	2.6	9.6	1.3	3.1	17.6	5.1	13.6	4.9
산책	18.3	36.3	19.8	24.8	23.6	24.7	3.3	35.7	20.8	39.9	36.1	28.0	17.9	24.3	17.3	22.9
친척, 친구, 이웃방문	13.3	11.4	15.0	18.1	11.8	8.0	4.5	11.4	7.8	12.1	8.1	14.6	-	19.7	13.8	13.2
여행	0.0	0.2	0.4	0.5	-	-	-	0.7	-	-	-	-	-	-	-	0.2
지역시설 이용/ 행사참여	4.6	3.8	5.3	6.6	-	6.3	3.3	6.5	4.5	4.8	4.1	2.8	-	2.4	8.4	4.9
일자리 구하기	2.0	0.3	2.2	1.2	-	0.4	-	-	-	1.0	-	-	9.0	-	2.8	1.4
기타	2.7	4.8	4.4	2.7	-	5.2	3.3	6.9	2.4	3.6	6.7	6.4	6.5	2.3	7.9	3.5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N)	(2,561)	(608)	(567)	(584)	(49)	(286)	(59)	(184)	(106)	(108)	(74)	(33)	(12)	(40)	(37)	(5,308)
전국추정수	983,665	233,772	218,834	224,251	19,043	109,424	23,259	70,953	40,286	41,684	28,652	12,596	4,369	15,466	14,271	2,040,525

주: 비해당 156건 및 무응답 2건 제외

전혀 외출하지 않고 있는 재가장애인들의 외출하지 않는 주된 이유로 가장 비율이 높은 것은 ‘장애 때문에 몸이 불편해서’였는데, 전체 응답자의 79.5%가 심한 장애를 이유로 들었다. 장애유형별로는 시각장애와 정신지체의 경우, ‘외출을 도와줄 도우미가 없어서’라는 응답이 각각 100.0%, 24.1%로 많이 나타나 장애특성을 반영해주는 결과라 하겠다.

〈표 6-8-4〉 외출하지 않는 주된 이유

(단위: %, 명)

주된 이유	지체 장애	뇌병변 장애	시각 장애	청각 장애	언어 장애	정신 지체	발달 (자폐)	정신 장애	신장 장애	심장 장애	호흡기 장애	간 장애	안면 장애	장루·요루 장애	간질 장애	전체
장애 때문에 몸이 불편해서	81.1	89.3	-	65.7	-	75.9	-	42.3	-	-	100.0	100.0	-	-	100.0	79.5
외출도울 도우미가 없어서	6.4	2.4	100.0	-	-	24.1	-	12.8	-	-	-	-	-	-	-	5.7
시간이 없어서	-	-	-	-	-	-	-	-	-	-	-	-	-	-	-	-
본인이 하고 싶지 않아서	-	2.4	-	34.3	49.4	-	-	25.1	-	-	-	-	-	-	-	6.4
기타	12.5	5.8	-	-	50.6	-	-	19.8	-	-	-	-	-	-	-	8.4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	100.0	-	-	100.0	100.0	-	-	100.0	100.0
(N)	(32)	(83)	(2)	(9)	(2)	(4)	-	(16)	-	-	(3)	(2)	-	-	(1)	(154)
전국추정수	12,282	32,298	717	3,262	784	1,513	-	5,832	-	-	1,301	801	-	-	284	59,074

주: 비해당(외출하는 경우) 5,310건 및 무응답 2건 제외

장애인들은 집밖 활동시 여러 가지 이유로 일반인보다도 불편을 더 많이 느끼는 것이 일반적이다. 장애인들이 집밖 활동시 불편 정도를 알아본 결과, ‘매우 불편하다’ 24.8%, ‘약간 불편하다’가 30.2%로 절반 정도의 장애인이 집밖 활동시 불편함을 호소하고 있었다. 장애유형별로 보면, 주로 뇌병변장애와 호흡기장애가 외출시 가장 불편하였고, 언어장애, 청각장애, 신장장애 등은 비교적 외출시 덜 불편한 것을 알 수 있다.

〈표 6-8-5〉 집밖 활동시 불편여부

(단위: %, 명)

구분	지체 장애	뇌병변 장애	시각 장애	청각 장애	언어 장애	정신 지체 (자폐)	발달 장애	정신 장애	신장 장애	심장 장애	호흡기 장애	간 장애	안면 장애	장루·요루 장애	간질 장애	전체
매우 불편	20.0	53.7	22.3	15.1	9.9	27.3	34.7	20.7	26.0	24.8	48.6	26.4	21.7	25.1	22.3	24.8
약간 불편	31.2	29.7	30.3	27.8	27.1	30.1	34.0	23.9	22.6	36.7	24.5	35.7	44.8	29.4	37.5	30.2
불편하지 않은 편	33.4	14.8	29.8	43.2	49.0	30.1	22.6	31.1	38.2	31.7	24.3	25.3	26.7	37.6	27.5	31.6
전혀 불편하지 않음	15.4	1.9	17.6	13.9	14.0	12.6	8.7	24.3	13.2	6.7	2.6	12.6	6.8	7.9	12.8	13.5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N)	(2,560)	(608)	(567)	(583)	(49)	(286)	(59)	(182)	(106)	(108)	(74)	(33)	(12)	(40)	(37)	(5,304)
전국추정수	983,269	233,772	218,834	223,904	19,043	109,424	23,259	70,340	40,286	41,684	28,652	12,596	4,369	15,466	14,271	2,039,169

주: 비해당(전혀 외출하지 않음) 156건 및 무응답 6건 제외

재가장애인의 집밖 활동시 불편한 이유를 알아보면, 가장 불편한 점으로는 ‘장애인 관련 편의시설이 부족해서’가 35.6%로 가장 많아 장애인의 집밖 활동을 위해서는 편의시설 확충이 필요함을 알 수 있다. 이와 함께 ‘외출시 동반자가 없어서’ 27.9%, ‘주위 사람들의 시선 때문에’ 13.9%도 어려운 점으로 지적하고 있다.

장애유형별로는 장애특성이 반영된 결과를 보여주고 있는데, 지체장애의 경우 ‘장애인 관련 편의시설 부족’이란 응답이 46.2%로 가장 많았고, 정신지체(62.5%), 언어장애(47.8%), 발달장애(47.6%)의 경우 ‘외출시 동반자가 없어서’라는 응답이 많았고, 안면장애는 ‘주위 사람들의 시선 때문에(100.0%)’ 집밖 활동시 불편하다고 응답하였다.

<표 6-8-7> 계속

구분	지체 장애	뇌병변 장애	시각 장애	청각 장애	언어 장애	정신 지체	발달 (자폐)	정신 장애	신장 장애	심장 장애	호흡기 장애	간 장애	안면 장애	장루·요루 장애	간질 장애	전체
전동휠체어	0.6	0.6	-	-	-	-	-	-	-	-	-	-	-	-	-	0.3
전동스쿠터	0.4	0.6	-	0.2	-	-	-	-	-	-	-	-	-	-	-	0.3
도보	15.3	19.9	21.2	25.4	24.7	31.1	14.6	27.5	12.0	21.2	19.9	5.9	27.1	27.2	18.3	19.1
기타	5.1	5.4	5.0	5.5	7.4	4.3	11.6	2.1	3.6	4.5	4.1	8.8	-	6.6	2.6	5.1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N)	(2,556)	(608)	(566)	(584)	(49)	(286)	(59)	(183)	(106)	(108)	(74)	(33)	(12)	(40)	(37)	(5,301)
전국추정수	984,751	243,517	218,864	224,593	19,440	109,779	23,259	72,189	40,286	41,684	29,037	13,397	4,369	15,466	14,271	2,054,902

주: 비해당(전혀 외출하지 않음) 156건 및 9건 제외

장애인들이 교통수단 이용시 어려운 정도는 <표 6-8-8>과 같이 44.8%의 장애인이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응답하였고, 장애유형별로는 장애특성에 따라서 뇌병변장애, 호흡기장애가 가장 어려움이 큰 것으로 나타났으며, 정신장애, 청각장애, 언어장애, 안면장애, 발달장애 등의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어려움이 적었다.

<표 6-8-8> 교통수단 이용시 어려운 정도

(단위: %, 명)

구분	지체 장애	뇌병변 장애	시각 장애	청각 장애	언어 장애	정신 지체	발달 (자폐)	정신 장애	신장 장애	심장 장애	호흡기 장애	간 장애	안면 장애	장루·요루 장애	간질 장애	전체
매우 어려움	15.7	41.4	13.7	8.5	8.1	19.9	14.3	6.4	15.7	10.6	30.3	28.2	18.0	7.3	14.2	17.6
어려운 편	28.2	33.2	28.2	23.5	23.8	17.3	19.6	13.3	25.7	45.0	25.5	14.1	15.2	33.2	19.5	27.2
어려움 없는 편	35.2	19.8	34.3	46.0	43.7	43.5	44.7	48.5	40.9	31.8	34.3	28.2	26.3	43.0	47.7	35.7
전혀 어려움 없음	20.9	5.7	23.8	22.0	24.3	19.4	21.4	31.8	17.7	12.7	10.2	29.6	40.5	16.4	18.6	19.5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N)	(2,561)	(607)	(567)	(584)	(49)	(285)	(59)	(182)	(106)	(108)	(74)	(33)	(12)	(40)	(37)	(5,304)
전국추정수	986,679	243,120	219,216	224,593	19,440	109,422	23,259	71,853	40,286	41,684	29,037	13,397	4,369	15,466	14,271	2,056,092

주: 비해당(전혀 외출하지 않음) 156건 및 무응답 6건 제외

장애인들이 교통수단 이용시 어려운 이유로는 '버스·택시가 불편해서'가 58.9%로 가장 많았고, 장애유형별로는 안면장애의 경우 버스나 택시 이용시 가장 어려움이 큰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안면장애인들에 대한 승차거부에서 기인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 다음으로는 '지하철 엘리베이터 등 편의시설 부족'이 20.6%였다. 장애유형별로는 장애특성에 따라 심장장애와 호흡기장애가 가장 어려움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표 6-8-9〉 교통수단 이용시 어려운 이유

(단위: %, 명)

구분	지체 장애	뇌병변 장애	시각 장애	청각 장애	언어 장애	정신 지체	발달 (자폐)	정신 장애	신장 장애	심장 장애	호흡기 장애	간 장애	안면 장애	장루·요루 장애	간질 장애	전체
버스·택시가 불편해서	62.2	60.5	53.3	65.3	71.8	45.0	24.3	44.1	57.1	49.0	46.2	61.8	80.4	52.0	23.3	58.9
지하철 엘리베이터 등 편의시설 부족	24.3	16.4	18.3	16.7	22.1	6.3	3.4	12.0	19.5	33.3	33.4	15.1	19.6	24.7	17.5	20.6
장애인 콜택시 등 전용교통수단 부족	7.4	13.6	10.0	6.8	6.1	12.5	27.2	2.6	11.6	12.7	12.9	7.5	-	6.1	8.3	9.4
장애인가용보급·면허증 확보어려워	0.7	0.5	-	-	-	2.0	-	2.7	-	-	-	-	-	-	-	0.6
전동휠체어가 없어서	0.9	1.3	-	-	-	2.0	-	-	-	-	-	-	-	-	-	0.8
기타	4.5	7.7	18.4	11.1	-	32.1	45.1	38.7	11.8	5.0	7.5	15.6	-	17.1	50.8	9.7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N)	(1,119)	(455)	(239)	(186)	(15)	(104)	(21)	(35)	(44)	(60)	(40)	(13)	(4)	(17)	(12)	(2,364)
전국추정수	429,129	174,288	91,757	71,611	5,806	40,306	7,884	13,772	16,682	23,144	15,730	4,859	1,452	6,265	4,805	907,490

주: 비례당 3,090건 및 무응답 12건 제외

3. 주택개조 필요성

재가장애인들이 현재 살고 있는 집의 구조가 생활하기에 얼마나 편리한지 알아본 결과, <표 6-8-10>과 같이 74.3%의 장애인이 살고 있는 집의 구조가 편리하다고 응답하였고, 25.7%가 불편하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표 6-8-10〉 현재 집구조의 생활편리도

(단위: %, 명)

구분	지체 장애	뇌병변 장애	시각 장애	청각 장애	언어 장애	정신 지체	발달 (자폐)	정신 장애	신장 장애	심장 장애	호흡기 장애	간 장애	안면 장애	장루·요루 장애	간질 장애	전체
매우 편리하다	9.9	7.6	13.3	11.6	17.1	12.3	14.2	10.7	8.6	6.3	9.2	21.8	9.5	8.7	-	10.3
대체로 편리하다	63.6	53.5	66.3	70.1	71.4	69.2	66.0	70.6	73.1	61.7	60.3	56.0	64.3	62.6	70.6	64.0
약간 불편하다	18.9	25.5	13.8	13.7	5.8	12.6	15.4	11.7	13.1	20.2	20.5	14.2	26.2	17.3	26.9	17.9
매우 불편하다	7.6	13.5	6.7	4.6	5.7	5.9	4.3	7.1	5.1	11.8	10.0	7.9	-	11.5	2.5	7.8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N)	(2,594)	(691)	(569)	(593)	(51)	(290)	(59)	(201)	(106)	(108)	(77)	(35)	(12)	(40)	(38)	(5,464)
전국추정수	996,346	266,070	219,551	227,513	19,827	110,937	23,259	77,180	40,286	41,684	29,953	13,397	4,369	15,466	14,555	2,100,393

주: 무응답 2건 제외

재가장애인들이 현재 살고 있는 주택의 불편한 점을 고려하여 개조할 의사가 있는지를 알아본 결과 개조 필요성이 있다고 응답한 장애인은 18.3%로 나타났으며, 장애유형별로는 장애의 특성상 이동에 불편이 있는 뇌병변장애의 개조 의사가 비교적 높게 나타났다.

〈표 6-8-11〉 주택개조 의사

(단위: %, 명)

구분	지체 장애	뇌병변 장애	시각 장애	청각 장애	언어 장애	정신 지체	발달 (자폐) 장애	정신 장애	신장 장애	심장 장애	호흡기 장애	간 장애	안면 장애	장루·요루 장애	간질 장애	전체
반드시 개조 원함	5.0	8.2	4.1	2.4	-	2.9	4.3	3.5	4.6	2.6	5.3	5.4	-	12.5	6.3	4.8
가급적 개조 원함	15.2	24.7	8.2	7.6	1.8	6.6	6.1	3.8	7.1	16.5	15.0	8.9	-	9.4	15.9	13.5
별로 개조원치않음	48.7	43.7	54.3	55.4	50.9	57.1	54.2	55.3	56.5	53.8	48.3	53.8	50.6	49.8	48.9	50.4
전혀 개조원치않음	31.2	23.5	33.4	34.6	47.3	33.4	35.4	37.5	31.8	27.1	31.5	31.9	49.4	28.3	28.8	31.3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N)	(2,594)	(691)	(569)	(593)	(51)	(290)	(59)	(200)	(106)	(108)	(77)	(35)	(12)	(40)	(38)	(5,463)
전국추정수	996,346	266,070	219,551	227,513	19,827	110,937	23,259	76,844	40,286	41,684	29,953	13,397	4,369	15,466	14,555	2,100,057

주: 무응답 3건 제외

현재 살고 있는 집안 구조를 개조할 의사가 있는 재가장애인 중에 개조를 희망하는 장소를 알아본 결과, 1순위로 선택한 것은 변기로 21.6%가 희망하였다. 다음으로는 문턱낮추기를 18.4%의 장애인이 희망하였고, 이외에도 욕조(12.8%), 부엌(12.4%) 등이 중요한 희망 사항이었다.

장애유형별로는 변기의 경우 간장애가 41.2%가 개조를 희망하였고, 문턱낮추기는 뇌병변장애가 27.7%, 욕조는 장루·요루장애가 36.1%, 부엌은 시각장애가 24.2% 개조를 희망하였다.

〈표 6-8-12〉 주택개조시 희망 개조 장소 - 1순위

(단위: %, 명)

구분	지체 장애	뇌병변 장애	시각 장애	청각 장애	언어 장애	정신 지체	발달 (자폐) 장애	정신 장애	신장 장애	심장 장애	호흡기 장애	간 장애	안면 장애	장루·요루 장애	간질 장애	전체
부엌	15.2	3.8	24.2	6.6	-	20.6	15.2	11.4	14.9	3.6	6.7	18.7	-	10.7	13.9	12.4
변기	24.3	18.3	15.2	13.6	-	27.8	11.0	40.8	8.7	18.8	25.2	41.2	-	22.4	10.6	21.6
욕조	10.3	19.4	11.0	5.2	-	15.2	29.9	-	24.4	6.0	18.6	-	-	36.1	23.6	12.8
문턱 낮추기	17.1	27.7	17.1	10.6	-	17.9	-	-	8.8	13.3	15.1	-	-	7.9	11.0	18.4
방문 고치기	1.7	0.8	-	-	-	-	-	-	-	-	4.9	-	-	-	-	1.2
냉·난방	5.3	3.3	1.4	9.0	100.0	7.1	12.3	12.7	-	12.4	-	18.9	-	-	12.5	5.1
채광	1.5	0.9	5.4	-	-	4.6	-	6.8	21.9	6.4	6.3	-	-	-	-	2.1
아파트출입구(계단)	6.9	6.3	5.9	1.6	-	-	-	-	-	14.4	5.9	-	-	-	-	6.0
청각장애인용	-	0.4	-	46.8	-	-	-	-	-	-	-	-	-	-	-	2.8
초인종(경광등)	-	-	-	-	-	-	-	-	-	-	-	-	-	-	-	-
현관(계단)	13.0	12.7	9.7	3.4	-	-	13.8	-	21.3	15.4	5.1	-	-	11.6	-	11.4
기타	4.7	6.3	9.9	3.2	-	6.9	17.7	28.3	-	9.8	12.3	21.3	-	11.3	28.4	6.3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	100.0	100.0	100.0
(N)	(522)	(230)	(71)	(57)	(1)	(28)	(7)	(15)	(13)	(21)	(16)	(5)	-	(9)	(8)	(1,003)
전국추정수	199,957	87,359	27,003	21,747	363	10,524	2,427	5,589	4,712	7,983	6,076	1,912	-	3,396	3,238	382,286

주: 비해당 4,460건 및 무응답 3건 제외

2순위로 희망하는 집안 내 개조 장소로는 욕조가 19.5%로 많았다. 또한 문턱낮추기 (18.6%), 변기(16.0%), 현관·계단(12.5%) 등이 중요한 2순위 개조 희망사항이었다.

장애유형별로는 욕조의 경우 간장애가 62.8%가 개조를 희망하였고, 문턱낮추기는 간장애 37.2%, 변기는 간질장애가 48.3%, 현관·계단은 심장장애가 22.4% 개조를 희망하였다.

〈표 6-8-13〉 주택개조시 희망 개조 장소 - 2순위

(단위: %, 명)

구분	지체 장애	뇌병변 장애	시각 장애	청각 장애	언어 장애	정신 지체 (자폐)	발달 장애	정신 장애	신장 장애	심장 장애	호흡기 장애	간 장애	안면 장애	장루·요루 장애	간질 장애	전체
부엌	6.6	4.6	2.3	3.9	100.0	4.8	-	13.7	-	9.4	-	-	-	17.9	-	5.7
변기	15.2	13.5	28.1	11.0	-	18.8	-	24.8	12.9	20.2	12.1	-	-	30.2	48.3	16.0
욕조	22.5	15.0	13.7	15.3	-	19.8	18.4	32.6	13.1	7.0	23.7	62.8	-	16.8	36.9	19.5
문턱 낮추기	19.2	24.0	14.8	3.5	-	4.6	20.7	-	23.3	8.1	11.9	37.2	-	35.2	-	18.6
방문 고치기	2.8	5.1	5.9	3.5	-	9.4	16.4	-	-	-	-	-	-	-	-	3.7
냉·난방	6.7	4.9	10.7	18.6	-	16.6	21.1	28.9	14.4	10.1	11.3	-	-	-	-	7.6
채광	2.4	1.6	4.8	3.9	-	10.4	-	-	-	7.7	-	-	-	-	-	2.6
아파트출입구(계단)	8.6	8.3	5.5	3.4	-	-	-	-	12.2	6.7	-	-	-	-	14.8	7.5
청각장애이용 초인종(경광등)	0.3	0.6	2.1	20.6	-	-	-	-	-	-	-	-	-	-	-	1.3
현관(계단)	11.6	16.0	12.1	12.3	-	10.5	-	-	13.2	22.4	10.4	-	-	-	-	12.5
기타	4.1	6.4	-	3.9	-	5.0	23.5	-	10.9	8.5	30.7	-	-	-	-	5.0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N)	(343)	(176)	(48)	(26)	(1)	(20)	(5)	(7)	(8)	(13)	(9)	(3)	-	(6)	(6)	(671)
전국추정수	131,426	66,873	18,258	9,793	363	7,552	1,627	2,545	2,752	5,050	3,379	1,144	-	2,149	2,318	255,229

주: 비해당 4,793건 및 무응답 2건 제외

4. 종교현황

장애인들의 종교현황에 있어서는 재가장애인 중의 42.9%는 종교가 없다고 응답하였으며, 종교를 가지고 있는 경우는 불교가 24.3%로 가장 많았고, 개신교는 23.3%, 천주교 8.2%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는 일반인의 종교분포(무교 46.1%, 불교 47.0%, 개신교 36.8%, 천주교 13.7%)와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통계청, 2004).

장애유형별로는 호흡기장애의 28.5%가 불교라고 응답하여 가장 많았고, 발달장애는 개신교를 39.4%, 안면장애는 천주교를 27.1%로 가장 많이 응답하였다.

〈표 6-8-14〉 종교 분포

(단위: %, 명)

구분	지체 장애	뇌병변 장애	시각 장애	청각 장애	언어 장애	정신 지체	발달 (지체) 장애	정신 장애	신장 장애	심장 장애	호흡기 장애	간 장애	안면 장애	장루·요루 장애	간질 장애	전체
없음	44.0	37.9	41.5	43.4	52.5	48.8	37.1	45.6	39.4	41.8	34.5	38.1	42.3	48.4	40.2	42.9
불교	25.7	25.7	26.5	25.8	18.4	12.5	15.0	15.8	21.0	21.2	28.5	24.3	-	27.5	14.5	24.3
개신교	21.0	24.7	22.4	24.1	23.3	31.0	39.4	28.5	27.0	23.2	21.3	34.6	30.6	15.6	37.7	23.3
천주교	7.9	10.3	8.1	5.1	5.8	7.0	6.8	10.1	12.7	12.7	11.6	3.1	27.1	8.5	4.7	8.2
유교	0.6	-	0.5	1.3	-	-	-	-	-	1.1	4.1	-	-	-	-	0.5
기타	0.8	1.3	1.1	0.4	-	0.7	1.7	-	-	-	-	-	-	-	2.9	0.8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N)	(2,592)	(691)	(569)	(593)	(51)	(290)	(59)	(201)	(106)	(108)	(76)	(35)	(12)	(40)	(38)	(5,461)
전국추정수	995,603	266,070	219,551	227,513	19,827	110,937	23,259	77,180	40,286	41,684	29,570	13,397	4,369	15,466	14,555	2,099,267

주: 무응답 5건 제외

5. 문화 및 여가활동

장애인들은 일반적으로 문화 및 여가활동으로 유선방송이나 비디오를 포함한 TV시청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복수응답이 가능한 문화 및 여가활동 내용은 <표 6-8-15>와 같다. 전체 응답자의 95.2%가 TV시청으로 여가시간을 보내고 있었다. 그 밖의 문화 및 여가활동으로는 사교 일(친구만남, 모임 등)에 54.2%, 가사잡일 45.2%, 독서, 신문이나 잡지 읽기 33.7% 등이었고, 감상·관람(연극, 영화 등), 창작적 취미(미술, 서예, 음악연주 등), 사회자원봉사활동, 스포츠, 학습활동 등은 상대적으로 미미한 수준이었다.

이러한 문화 및 여가활동을 일반인들과 비교하여 보면, 일반인도 TV시청이 26.1%로 가장 높았고, 그 다음으로 휴식·수면 16.1%, 가사일 12.1%, 사교관련 11.4%, 가족과 함께 9.3%, 컴퓨터 게임·PC통신 6.9%, 여행 5.2%, 문화예술관람 2.3%의 순으로 나타나 장애인과 일반인간에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통계청, 2004).